

제12과 환난 가운데서도 전파되는 말씀

2019.6.19

본문 : 사도행전 12:1-25

요절 : 사도행전 12:24

순탄하게만 보였던 복음의 길에 또 다시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의 손에 죽고 베드로가 잡혀 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헤롯은 총이 먹어 죽게 되고 말씀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I. 본문 살피기

1. 성도들을 향한 헤롯의 박해가 어떤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1-3)
 - 헤롯이 요한의 형제 ()를 칼로 죽였다.(2)
 - ()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도 잡으려 했다.(3)
2.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4,5)
 -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 했다.(5)
3. 베드로가 출옥하게 되는 과정을 말해 보시오.(7-11)
 - 주의 ()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자 ()이 그 손에서 벗어났다.(7)
 -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을 보는 줄로 알았다.(9)
4. 풀려난 베드로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12-16)
 - 성도들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12)
 -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집 안 사람들에게 달려가 전했다.(13-14)
 - 사람들은 여자 아이가 ()거나 베드로의 ()가 나타났다고 생각했다.(15)
 -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16)

5. 헤롯의 교만과 죄악이 어떻게 나타나며 결국 어떤 최후를 맞습니까?(21-23)
-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단상에 앉아 ()했다.(21)
 - 백성들이 헤롯을 향해 “이는 ()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송했다.(22)
 - 헤롯은 영광을 ()께 돌리지 않았고, 주의 사자가 치자 ()에게 먹혀 죽었다.(23)
6.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보고자 했지만 결국 말씀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24)
- 하나님의 말씀은 ()하여 더했다.(24)

II. 생각하고 적용하기

1. 베드로까지 잃게 될지 모른다는 아픔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기도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나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왜 놀라고 믿지 못했을까요?
-

2.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은 도리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승리의 현장을 보며 어떤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까?
-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기까지 하나님은 무얼 하고 계셨을까?”라고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순교의 현장에서 멀리 계시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시지도 않았고 무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의 현장에도, 또 베드로가 갇힌 옥에도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곳에도 계셨으며 헤롯의 음흉한 정치술수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고난의 그곳에 결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어떤 통쾌한 승리의 현장을 보게 될지 기대하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